

# 캠핑 시즌 돌아 왔다

### 광주 이마트, 1~2월 캠핑용품 매출 40% ↑ ... 오늘부터 할인전 캠핑산업 전년비 90% 증가... 캠핑족 연간 캠핑 횟수 5.1회

완연한 봄이 찾아오면서 유통가가 외부 활동을 위한 관측전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지난달부터 따뜻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연초 캠핑과 골프 등 용품과 의류가 인기를 끌고 있다. 16일 광주 3개 이마트에 따르면 올해 1~2월 캠핑용품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9.2% 증가했다. 상품별로 보면 캠핑장에서 쓰는 탁자 매출은 130.4% 늘고, 의자도 12.9%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지난해부터 캠핑 수요는 크게 올랐다. 지난해 한 해 광주 이마트에서 캠핑용품 매출은

전년보다 14.7% 증가했다. 타프(그늘막) 매출은 67.7% 증가하고 의자 54.7%, 텐트 15.6% 등도 매출이 늘었다. 광주 이마트에서의 캠핑 매출 성장세는 전국 평균(2021년 36.4%·올해 1~2월 14.9%)을 웃돌았다. 꾸준한 캠핑 수요에 맞춰 이마트는 상춘객을 겨냥한 캠핑용품 할인전을 17일부터 이달 30일까지 진행한다. 광주·전남을 포함한 전국 이마트는 이 기간 동안 캠핑용 텐트와 탁자, 의자 등 캠핑용품을 균일가 또는 10~15% 할인 가격에 판매한다.

이마트는 지난해 처음 자체적으로 내놓은 캠핑용품 9종에서 올해 19종으로 늘려 선보인다. 준비 물량도 9억원 상당에서 20억원 규모로 확대했다. 이마트가 자체적으로 내놓은 상품은 탁자 3종과 의자 6종, 그늘막 2종, 침낭 2종 등을 10% 저렴한 가격에 내놓는다. 이 기간 동안 아웃도어 대표 브랜드의 보온·보냉용기 등 총 68종을 행사 카드로 구매하면 15% 싸게 할 수 있다. 스탠리 워터저그·아이스박스·런치박스 등 시즌상품 22종을 구매한 고객이 오는 30일까지 이마트앱 행사에 응모하면 추첨을 통한 4000명에게 라볶이 가정간편식을 증정한다. 롯데마트는 캠핑장에서 즐기기 좋은 과일을 선보이며 틈새 공략을 하고 있다. 올해 1월 '구워 먹는 토마토'를 내놓았고 지난

달에는 구워 먹기 좋은 '캠핑 갈 때 감귤'을 출시했다. 캠핑 때 화로에 굽기 적당한 크기로 구성했으며, 상품 포장지에 조리법을 첨부한 것이 특징이다. 롯데마트는 과일을 구우면 신맛은 줄고 당도가 높아져 깊은 풍미를 주는 점에 착안해 이번 상품을 내놓았다.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2020년 기준 캠핑 이용자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캠핑 이용자 규모는 지난 2019년보다 34% 증가한 689명으로 추정된다. 지난 2020년 국내 캠핑산업 규모는 약 5조 8336억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전년(3조6899억원)보다 90.1% 증가한 규모다. 캠핑 이용자들의 연간 캠핑 횟수는 2020년 5.1회로, 2년 전(3.6회)보다 1.5회 증가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광주은행, 메가박스와의 제휴 올해 상반기 전용 카드 출시

광주은행과 영화관 '메가박스'가 손잡고 올 상반기 전용 카드(PLCC)를 내놓고 공동 판촉을 벌인다. 광주은행은 최근 동구 대인동 본점에서 조정민 광주은행 부행장과 김현수 메가박스 멀티플렉스 본부장이 '전략적 업무 제휴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올해 상반기 메가박스 핵심 고객을 대상으로 한 '메가박스 전용 카드'(PLCC)를 내놓을 방침이다. 협약에 따라 전용 금융상품을 출시하고 온·오프라인 영업망도 연계한다. 조 부행장은 "금융과 영화 산업 간 융합을 통해 각 분야의 역량 및 노하우를 공유하고, 시너지를 창출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데 기대가 크다"며 "데이터 융합 및 장기적인 협업체계를 통해 고객 요구를 반영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융의 디지털화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여름 신발 미리 준비하세요 16일 광주 한마트 기온이 20도를 웃돌고 17일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된 가운데 광주신세계 신관 지하 1층 '어그' 매장 직원들이 방수 기능을 갖춘 여름 신발과 샌들을 선보이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 이마트 브랜드 '데이즈' 봄·여름 의류 20% 할인

#### 이달 말까지 진행

이마트는 자체적으로 내놓은 의류 브랜드 '데이즈'가 17일부터 이달 말까지 봄·여름 바지 전품목과 티셔츠 일부를 20% 할인 판매한다고 16일 밝혔다. 할인 받으려면 행사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이외 인기 속옷과 양말도 20% 할인된 가격에 내놓는다. 이마트 데이즈는 이날부터 활동성을 높인 바지 두 종류를 총 8가지 색상으로 새롭게 선보인다. 이 바지는 재택근무와 원격교육 등의 영향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 고객들의 편안함을 높여준 것이 특징이다. 폴리우레탄 등 신축성이 좋은 원단을 활용했으며 세로방향 원사(실) 배열 시 장력을 낮춤으로써 대각선 방향으로도 쉽게 늘어나게 했다. 이번 상품에 대해서는 남성·여성복을 같은 원단, 유사한 디자인으로 제작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이를 통해 평상시보다 약 10배가 넘는 대량 생산으로 원가를 대폭 낮출 수 있었다. 이마트 측은 해상 물류 비용이 전년보다 20~30% 인상되면서 의류 가격이 오르는 가운데 대량생산으로 원가를 크게 절감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할인에 추가적립까지... 옷 장만 지금이 '딱'



16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여성의류 매장서 직원들이 올 봄 신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롯데백화점 제공>

#### 롯데백화점 광주점

#### 20일까지 패션그룹 대전

봄맞이 옷 장만하려는 소비자가 늘면서 롯데백화점 광주점이 17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여성 5대 패션그룹 대전'을 진행한다. 행사 참여 기업은 한섬과 삼성물산, 바바패션그룹, 대현그룹, 시선그룹 등이다. 타임, 마인, 시스템, SJSJ, 아이진바바, 지코트, JJ지코트 등 참여 브랜드도 다양하며 브랜드별로 행사 기간이 다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이 기간 동안 이들 브랜드는 올해 봄·여름 의류 신상품을 5~20% 할인된 가격에 내놓는다. 마일리지를 추가 적립해주기도 한다. 최상주 롯데백화점 광주점 패션팀장은 "코로나 19 사태 이후 봄 맞이 야외활동을 자제하던 고객들이 거리두기 완화 기대감에 백화점에 방문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봄을 맞아 패션 신제품 구매를 고민했다면 지금이 가장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한국토지부동산(주)

## 전원주택 신축

## 매매 9억5천만원



###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